

제일모직, 부모 초청 입사식 개최

제일모직은 3월14일 신입사원 80명의 부모를 의왕 본사로 초청해 입사식을 열었다고 3월15일 발표했다.

입사식에는 박종우 사장과 케미칼, 전자재료, 패션사업부의 임원진이 참석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을 격려하고 부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존의 사령장만을 수여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신입사원들이 직접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신입사원들은 각 지방사업장을 방문해 수행했던 미션을 영어, 중국어, 일어 프레젠테이션으로 능숙하게 발표해 글로벌 예비 인재로서의 경쟁력을 자랑했다.

제일모직의 변신과정과 사업부의 핵심 경쟁력을 뮤지컬 형식으로 선보이는 무대를 연출해 선배들과 가족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종우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일모직은 <삼성의 인재사관학교>라고 불릴만큼 인재를 중시하는 회사”라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데 남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밝혔다.

신입사원들은 지난 8주간 삼성그룹과 제일모직 입문교육 과정을 통해 삼성인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을 현장 중심으로 체득했다. 연구개발, 영업, 지원 등 각 현업 부서에 배치됐다.

<화학저널 2012/03/15>